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0월 1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월 12일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0. 11.(목)	담당부서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김영만 과장(02-734-1864)	담 당 자	이윤진 사무관(02-734-1870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
- 10.13.(토) 싱가포르 -

□ **"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" 제6차 회기 간 장관회의**가 **10. 13.(토) 싱가포르**에서 열린다.

* RCEP 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아세안(ASEAN) 10개국 및 한·중·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·태지역 메가 FTA
* RCEP 제6차 회기간 장관회의 : 10.13(토) 8:30 - 19:00,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

○ 이번 회의는 협상 가속화 차원에서 **지난 장관회의(8.30~31, 싱가폴)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**하는 것으로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을 포함해 **16개국 장·차관**이 **참석**한다.

□ 16개국 장·차관은 **연내 실질타결 의지를 재확인**하는 한편, 8월 장관회의 이후 **상품·서비스·투자 양허협상 진전사항을 점검**하고, **'연내 성과 목표 패키지' 달성**을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.

○ **김현종 본부장**은 연내 실질타결을 위한 잔여 쟁점 해소 차원에서 **각국이 기대수준을 상호조정**하고, **국별 이익과 민감성을 함께 감안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**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.

□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* 타결은, **아세안·인도 등 유망시장에 대한 교역·투자 다변화**와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간 **경제통합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충**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.

○ 향후 정부는 **합리적인 절충안 모색**을 통해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**에 **이바지하면서** 우리 핵심이익을 **극대화하는 방향**으로 **협상**을 **추진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만 과장(☎ 02-734-1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RCEP 협상 경과 및 의의**

1. 협상 경과

□ 2012. 11. 20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계기 **RCEP 협상개시 선언**

□ 2013. 5월 협상개시 후 **23차례 공식협상** 및 **11차례 장관회의** 개최

□ 2017. 11. 14 RCEP 정상회의에서 **2018년 타결목표** 설정

2. RCEP 협상 의의

□ **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*을 차지**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·투자 기반 확보 기대

* RCEP 對세계비중('17년IMF): GDP 25.4조불(32%), 인구 36억명(49%), 교역 9.6조불(29% '16년)

□ 상대적으로 **경제성장률*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** 미래 유망시장**

* '16년 성장률(IMF): 中 6.7% / 印 6.6% / 베트남 6.2% vs 美 1.6% / 유로존 1.7%
** 중위연령('17, UN): 인도 26.7세, ASEAN 29.2세 vs 한국 40.8세 일본 46.3세, 미국 37.6세

□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**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

◈ RCEP 체결시 **경제적 기대효과**('12, KIEP)
- **(실질 GDP)** 10년간 **1.21~1.76%** 증가; **(소비자 후생)** 10년간 **113.51~194.56억 달러** 증대

3. RCEP 타결 시 기대효과

□ **(상품)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**이 논의 중인 바, 이 경우 **한-아세안/인도**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**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자유화** 가능

□ **(서비스) 한-아세안, 한-인도 등 기체결 FTA**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대비 **추가개방 효과 발생** 예상

○ **(투자)** 한-아세안/한-중 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, **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**으로 **기체결 FTA 개선 효과** 기대

□ **(원산지)** 기체결 FTA상의 복잡·다양한 **원산지 기준을 단순화, 통일된 기준을 적용***함으로써 **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* 제고**

* FTA 수출활용률('17)은 한-아세안 47.8%, 한-인도 67.5%로 낮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원인으로 파악
* (예시) A품목의 경우 한-아세안/베/호 "RVC40 or CTH", 한-인 "CTSH+RVC35", 한-중 "CTH"이던 것을 RCEP에서 "RVC40 or CTH"로 단순화